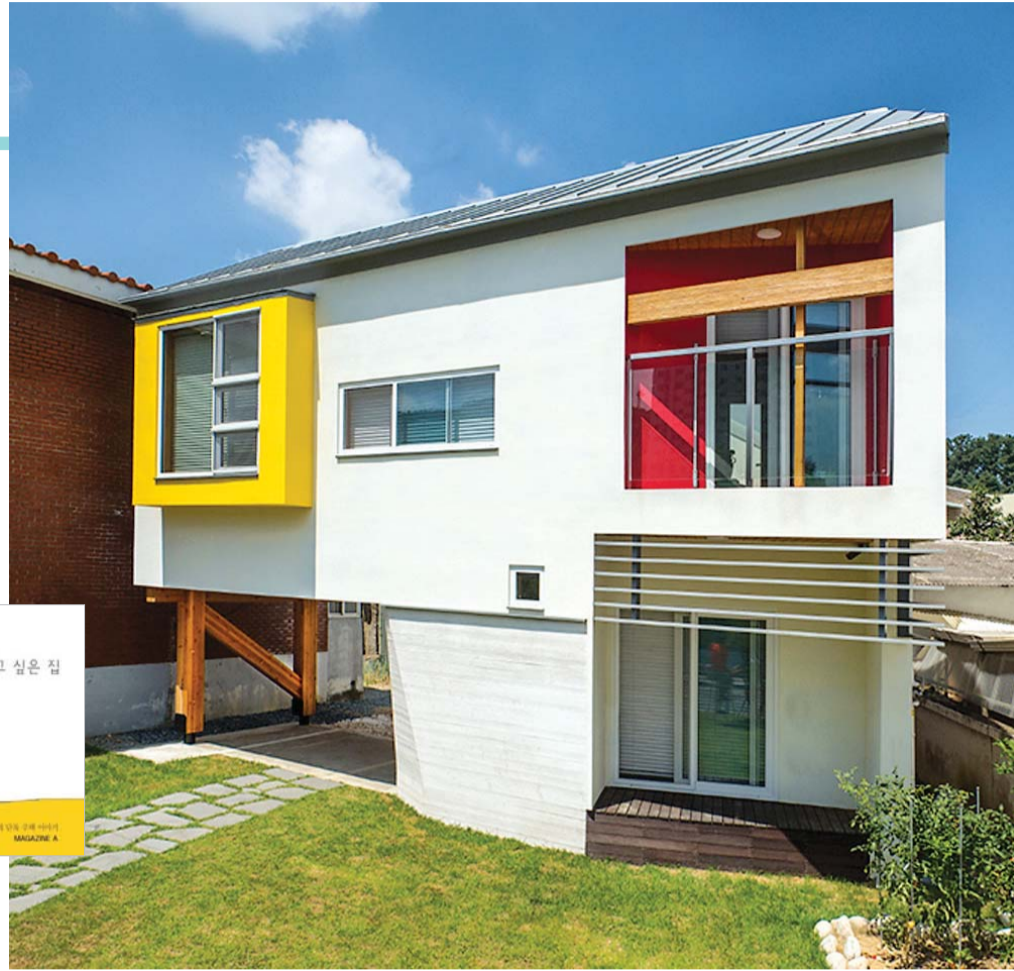


“집은 생각으로 짓고 시간이 완성한다”

살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집

<2> 책으로 만나는 집 짓기



'내가 살고 싶은 집-주향재'의 저자 김동희 건축사가 설계한 '주향재' © Songjung

아파트 잘못 팔아 6억 넘게 손해를 보기도 했던 그는 때론 돈을 좇아, 때론 행복을 좇아 '집을 찾는 모험'을 감행했다. 아파트로, 한옥으로, 단독주택으로 15년간 6차례 이사를 하며 이어지던 변화는 작은 땅을 사 협소주택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서촌에 땅 면적 18평, 3층 짜리 집을 짓고 산다는 생각에 그는 스스로 놀라워 한다. 정성갑 한뼉 갤러리 대표는 집에 대한 단상, 집 짓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 '집을 쫓는 모험' (브.레드)을 펴냈다. <인터뷰 참조>

'살내주차 주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집을 보곤 눈이 동그해졌다. 글자 그대로 차가 집 안에 버섯이 들어가 있는 집이다. '집에 차를 주차하는 로망'을 갖고 있던 '차덕후'가 고단하고 지난한 가족 설득 과정을 거쳐 완성한 집은 흥미롭다. 자동차 전문가 출신으로 영국 BBC 'TOP Gear' 한국 에디터를 맡기도 했던 김준선씨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되는 예산으로 집을 짓는 과정을 '차덕후, 처음 집을 짓다: 자동차 덕후 아빠의 거실에 주차하는 집짓기 프로젝트' (앵글북스)에 담았다.

'집' 시리즈를 준비하며 '집' 관련 책들을 흥미롭게 읽었다. 자기만의 집을 짓는 건 신축이든 리노베이션이든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간다. 책을 통해 미리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작은 노하우를 얻는다면 좋을 듯하다. 내가 당장 집을 짓지는 않더라도, 삶과 이야기가 담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사고가 확장됨을 느낀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건축가 서현의 '내 마음을 담은 집-작은 집의 건축학 개론' (효형출판)은 막 출간된 신작이다. '문추현', '담류현', '권원재' 등 그가 직접 지은 작은 집 3채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다.

EBS '건축탐구-집'을 통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은주-임형남 부부 건축가는 '집'에 대한 책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집을 위한 인문학: 집

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물과 사상사)는 이런 글로 시작한다. "나를 풀어주었던 집, 내가 자리했던 집은 그 후 내 속에 있고 나와 더불어 세월의 지평선으로 사라진다" (프랑스 건축가 폴 앙드레)

책에는 두 사람이 지은 집들이 다양하게 소개돼 있다. "집은 생각으로 짓고 시간이 완성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다. 집에는 가족이 나누던 온기와 생활의 흔적과 집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담긴다"라는 생각을 실천하는 그들의 집짓기와 의뢰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책 '사람을 살리는 집 : 지금 우리 집을 다시 생각하다' (예담), '작은 집 큰 생각' (교보문고), '도시 인문학 : 도시를 둘러싼 역사·예술·미래의 풍경', '골목 인문학 : 그 골목이 품고 있는 삶의 온도' 등도 건축과 집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지난해 나온 '내가 살고 싶은 집-주향재'는 충남 공주시 작은 대지에 빠듯한 예산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저지단 특별한 집을 원했던 젊은 부부가 의뢰한 집을 짓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대지라는 제약 속에서 건강한 집짓기를 실천한 김동희 건축사의 집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녹아있는 책이다.

건축디자인 최재철이 쓴 '집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 (21세기 북스)은 집을 지을 때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요소들을 소개한 책으로 건축재료의 선택, 일상에 미치는 햇빛 채광의 힘 등 집을 지을 때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들에 대해 들려준다. 또 건축가 이일훈과 건축주인 국어선생 송승훈이 '잔서완석'을 지으면서 나눈 이메일 80여통을 엮어 만든 책 '제가 살고 싶은 집...'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인문학자 최효찬과 한옥 건축가 김장권이 쓴 '집은 그리움이다' (인물과 사상사)는 집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사와 함께하는 공간임을 이야기하며 '집'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건축가 김종진 교수가 쓴 '공간 감각' (효형출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에는 건축가가 설계한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소형주택이 많다. '일본식 소형 주택' (시그마북스)은 세대별 건축가 21인이 자신이 지은 집을 직접 소개하는 책이며 사사키 요시키의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 (중앙북스)는 시간과 더불어 바뀌어 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르는 집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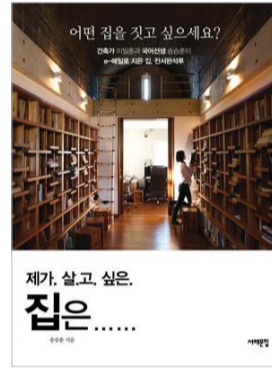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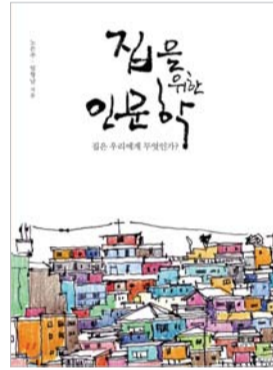
무슨 일이든 '먼저 경험해 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처음 지은 집-집짓기에 먼저 도전한 이웃들의 성공 포인트' (마티)는 16가족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집 짓기 체험담이다.

책을 구입하는 게 부담된다면 도서관을 활용하면 좋다. 서가에는 당신의 흥미를 당기는 집과 건축에 관한 책들이 준비해 있다.

'차덕후, 처음 집을 짓다'의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집 짓기는 주제일 뿐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꿈을 꿈으로만 남겨놓지 않는 방법'이라며 "자신만의 강력한 꿈을 갖고, 벽이 있다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뛰어 넘으라"고 말한다.

'나만의 집을 짓는다'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듯하다. 그 꿈을 이뤄가면 더욱 더 좋을 테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군가의 삶이 담긴 '집'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집을 위한 인문학' '내 마음을 담은 집' 등 건축가·건축주가 들려주는 다양한 집 이야기 실내 주차 주택·협소주택 다룬 책 눈길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나만의 풍경...단독주택의 즐거움”

'집을 쫓는 모험' 정성갑 씨

'집을 쫓는 모험'을 쓴 정성갑 한뼉 갤러리 대표가 협소 주택을 지은 지 이제 1년이 넘어간다. 집을 지은 후 '사계절'을 온전히 지내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는 사계절을 다 보내고 난 지금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집이 좁다 보니 창을 많이 냈는데 어디서 봐도 눈 오는 풍경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요즘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보면, 그때 마음 먹고 협소주택이라도 짓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더 애뜻하게 와 닿는 집이 됐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겁이 나는 게 돈이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집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 소리부터 나왔다. 8평, 6평, 8평 3개층 22평 규모인 집은 땅값,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6억원이



개인지 말라는 말이다.

"단독 주택에 살게 되면서 제일 큰 즐거움은 저만의 풍경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집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두군데 제일 이쁜 방향으로 창을 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나만의 것이죠. 요즘 중간 소음으로 난리 잡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줄넘기 하고 뛰고 그래요. 다름 사람과 엮이면서 받는 스

트레스가 없죠."

그의 집에서 가장 독특한건 화장실이 있지만 3층 주차 옆에 욕조를 둔 점이다.

"작은 집일수록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유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갖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필요 가 있어요. 어찌 보면 굳이 없어도 될 공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어딘가 만들어 놓으면 마음 불이고 큰 위로를 받아요. 처음엔 저의 주문에 건축가부터 시공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놀랐죠. 집이 작을수록 내가 휴식도 취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공간은 꼭 필요해요."

정 대표는 내 집을 짓는 것,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은 모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기를 내보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집을 쫓는 모험'을 쓴 정성갑 저자의 협소주택.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